테마칼럼

이세상 e세상 | 생고춘에 살며 | 경제로 세상보기

노키아 따라잡는 국내 휴대폰

이상길

"

차세대 휴대폰 시장의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폰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스마트 폰 시장에서도 역시 한국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국내 휴대폰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 삼성, LG등 국내 휴대폰 업계의 지난 3분기 판매점유율의 합계가 세계 1위인 노키아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노키아는 37% 안팎 그리고 삼성전자는 20.8%, LG전자는 11%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통계 자료가 그것이다.

국내 휴대폰의 판매 강세는 풀 터치 스크린 폰 등 값비싼 고급 제품들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업체의 풀 터치 스크린 폰이 다변화되면서 고급 제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국내 휴대폰의 발전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이전까지 듣고 말하던 일반 휴대폰의 시대에서 '보고 즐기는 풀 터치 휴대폰'의 시기가 열렸는가 싶더니 어느새 '들고다니는 PC'-스마트 폰 시대가 되었다. 애플은 인터넷사이트에서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거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앱 스토어)을 스마트 폰인 아이 폰에 결합시키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순이익이 47%나 급증했다. 스마트 폰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20여 종의 스마트 폰을 출시하고 TV·PC·휴대폰·MP3플레이어 등 모든 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확보에 노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13년 만에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노키아는 모바일 사업부문을 스마트 폰과 일반 휴대전화 부문으로 각각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황금광맥인 스마트 폰 시장 공략을 위해 체제정비를 하고 휴대폰과 각종 응용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차세대 휴대폰 시장의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폰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스마트 폰 시장에서도 역시 한국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IT솔루션과 콘텐츠다. 델 컴퓨터, 오라클 등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더 이상 하드웨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며 디지털 융복합 시장의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업계도 재편되고 있는데 PC제조업체, 복사기 제조업체와 IT솔루션기업의 결합,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업체와 무선네트워크의 결합 등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 추세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월 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의 대가로 선정한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개리 하멜 교수는 지금 세계는 지식 기반 경제를 벗어나 창의성 기반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독창성을 갖추려면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 타인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고담준론,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주위현장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이것은 현실을 차분히 쳐다보고, 외부에 대하여 마음을 열면서 그를 받아들인 이후에야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공장, 연구소, 직원 수가 외국에 더 많다. 이것은 창조에 필요한 지식을 조직 외부로부터 광범위하게 구하는 개방적 혁신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시스템이 한국 휴대폰의 세계 시장을 크게 확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재 업체인 P&G는 R&D 투자에 많은 비용을 쓰면서 내부에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절반 이상을 대학이나 연구소, 벤처 기업 등으로부터 구하고 내부에서는 제품의 상용화 등에 힘씀으로써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지역 IT, CT기업들도 내부 역량의 한계로 위축되거나, 자신의 영역을 빼앗길까 우려하지 말고 과감히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 IT업계의 경우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 공급이나 운용, 국가 정책사업인 CT R&D 사업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협력망을 구성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펼쳐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창조와 혁신, 그리고 아시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인 요소다. 움츠리지 말고 먼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김선명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초보농사꾼의 가을걷이도 이제 끝났습니다. 날씨가 순탄한 편이어서 거지반 천지님이 농사를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교도님들이 울력으로 힘을 모아주고 늘 살펴주어서 나름대로는 매일 논두렁을 밟고 고랑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이름만 농사꾼이었으나 은혜로운 한해였습니다.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나락(벼)를 보며 겸손함을 배우고, 가을걷이가 끝난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가 있음을 배웁니다. 소태산(少太山)은 천지자연이 운행되어지는 여덟가지 길(天地八道)를 밝혀주셨는데, 그 가운데 순리자연한 도의 삶을 체험으로 배우는 한해였습니다.

충남 아산 사람으로 조선초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었던 맹사성은 궁궐에 드나들 때에도 말 대신 소를 타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년의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러지도 않았나 봅니다. 열아홉의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여 스무 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되니 맹사성은 자만심도 있었겠지요?

어느 날 그가 무명 선사를 찾아가 물었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명 선사가 대답을 하기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길을 온 내게 해 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오?"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무명 선사가 차나 한 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는 못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는데, 스님은 찻물이 넘치는데도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다관의 차를 따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린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설주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와 부딪쳐 시비이해(是非利害)를 가릴 일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앞장세워 양보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는 결국은 자신이 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이치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힘이 없어 재앙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영산교당 교무〉

기고

박향

치매는 노화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다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 약값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비를 보존해 준다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치매를 질병으로 인지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다.

치매란 선천적인 정신지체와는 달리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다지고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적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총칭하여 이르는 질병으로 그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목표를 증상경감과 병증의 진행억제에 두고는 있지만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년 후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한 위험이 1/4로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어 일단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노화 과정인 '노망'이라 여기고 있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 시에서는 5개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완료하였고, 천주의 성요한병원 내에 치매 낮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과 가족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고 낮 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주간보호 및 치료와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노인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인들은 다양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가족력이 있을수록 치매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지며, 흡연, 과도한 음주, 육식 위주의 영양 또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미혼, 독거,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특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지 않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1.5배, 우울증은 2배 이상 치매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와 각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절주, 운동과 같은 건강행태개선사업이나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치매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며,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나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 또한 이 지역 노인들의 든든한 사회적 지지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치매의 환경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매예방을 위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이다. 흡연, 과도한 음주, 육식 위주의 잦은 외식, 운동소홀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주변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등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평균수명이 30세 이하였던 고대에도 소크라테스는 71세, 플라톤은 80세의 수명을 누렸다. 물론 좋은 신체조건과 올바른 생활습관이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왕성한 두뇌활동과 삶에 대한 열정 등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며 올바른 건강습관으로 유병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질환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광주시 보건위생과장〉

간병인 근무환경 개선 필요

최근에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 개인 간병인을 썼다. 그러나 간병인의 서비스가 부실해 결국 어머님이 직접 간병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간병을 시작한 지 1주일쯤 지났을 때 간병인들의 역할이 부실한 이유를 알았다.

어머님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식사는 매 끼니를 싸와서 드셨다. 또 환자 산책과 마사지 등 할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 간병인들이 지쳐버리는 듯 했다. 그런 역할이 고되다 보니 서비스가 부실하고, 별수 없이 가족이 간병을 맡게 되는 것이다.

갈수록 핵가족화가 커져 간병인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간병인의 고충을 덜 수 있는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GS 예울마루' 기업 사회공헌 확산 계기로

여수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될 '예울마루'가 어제 첫 삽을 떴다. 예울마루는 여수시 망마산 및 장도 일원 70만1천740㎡(21만평)의 부지에 1천1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어린이환경놀이터, 야생초 정원, 생태 산책로, 삼립욕장과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예술공간으로 꾸며진다.

예울마루는 GS칼텍스의 여수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의 결실이다. 사업비 1천억원을 GS칼텍스가 부담해 오는 2012년 핵심시설인 공연장과 전시장이 완공된다. 세계적 건축 설계가가 친환경 조형물로 설계해 여수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일 뿐 아니라 세계적 관광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IMF 경제 위기 이후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사회공헌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지난 2007년의 경우 기부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GS칼텍스의 여수 예울마루 조성사업은 반기업 정서를 해소시킬 뿐 아니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직도 세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얻는 플러스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기업들이 솔선수범해 사회공헌에 나설 때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당연히 기업의 사회공헌 필요성도 증가한다. 기업이 성장에 기여한 사회와 수익을 나누는 것은 이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예울마루 기공이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혈세만 축낸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예술의 거리 입주 상인들조차 사업중지를 요구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8월부터 시비와 국비 등 8억원을 투입해 공예난장, 예술 마니아의 세계 등 6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부실해 헛물만 켜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열린 '예술 마니아 세계'의 공연의 경우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관객이 30여명도 되지 않아 '동네 행사'로 전락했고, 다음날 개최된 골동품 시민강좌에는 수강생이 단 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는커녕 주최 측 '안방 잔치'로 끝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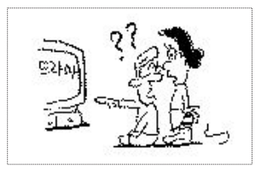
이번 특화사업의 실패는 시작부터 예견됐다. 우선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졸속 운영이 불가피했다. 사업 개시 6개월이 지난 7월에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 기간 중에 예술감독마저 갑자기 교체돼 일관성을 잃었고 홍보도 전혀 안 됐다고 한다.

입주 상인과의 소통 부족도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상인들이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각종 공연에 대해 '소음'에 불과하다며 중지를 요청했을까.

예술의 거리는 아시아문화특구지구의 핵심지역인 동시에 예향 광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시는 특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입주 상인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사업이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혈세만 축낸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문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클리셰



"어! 저 영화 어디서 본 듯한데." "저 드라마는 왜 낯이 익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 자신이 예견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스토리 전개와 결말을 알아맞힌다.

이런 상황은 왜 생길까? 그것은 데자뷰(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가 아니다. 단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클리셰 때문이다.

클리셰란 원래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鉛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판에 박은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너무 자주 사용되어 진부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 '자동차사고', '기억상실증', '3각 관계' 등 이야기 흐름에 뻔하게 등장하는 전개를 클리셰라고 할 수 있다.

무려 200억여 원에 달하는 제작비로 화제를 뿌린 KBS 드라마 '아이리스'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병헌·김태희 등 초호화 캐스팅에, 웅대한 스케일은 가히 국가대표급 '블록버스터 첩보 액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전개가 무척이나 낯이 익다. 실제 '아이리스'의 기본 구도인 남북 정보기관의 대결은 영화 '쉬리'와 유사하다. 극의 배경인 NSS(국가안전국)는 MBC '개와 늑대의 시간'의 국가정보원과 닮았고, 남자 주인공의 첩보전은 영화 '본(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시리즈와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시킨다. 이병헌과 김태희, 정준호의 엇갈리는 삼각관계는 SBS '올인'과 비슷하다. 전형적인 클리셰다. 자칫 스케일만 크고 전문성 없는 평범한 드라마로 전락시킬 함정이 곳곳에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시청자들이 식상해 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다분히 엿보인다.

아이리스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야심작이다. 대장금을 잇는 한류 재폭발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더욱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여야할 분발이 촉구된다.

/김일환여론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